

## 虛辭와 文型

### 1) 虛辭

以

- ① 況陽春召我以煙景(하물며 따뜻한 봄날이 아름다운 경치로써 나를 부르니)－도구·방법(～로써, ～을 가지고)
- ② 所貴乎人者, 以有其五倫也(사람에게 귀한 바는 오륜이 있기 때문이다.)－이유
- ③ 以庚戌之歲十一月(경술년 11월에)－시간
- ④ 大塊假我以文章(조물주가 나에게 문장을 빌려 주다.)－목적

※ 참고 : 以의 기타 용법

- 以爲(～라고 생각하다, 여기다.)  
民猶以爲小也(백성이 오히려 작다고 여긴다.)
- 以～爲～(～를 ～라고 하다, 생각하다.)  
以書窓爲螢窓(서창을螢窓이라 한다.)

於·于·乎

- ① 微時行役憩于路上(한미했을 때에 가다가 길 위에서 쉬었다.)－처소·장소(～에서, ～에게, ～로, ～에)  
靑出於藍(청색은 쪽풀에서 나온다.)
- ② 禍莫大於從己之欲(화는 자기의 욕심을 쫓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.)－비교(於 앞의 서술어는 반드시 형용사)  
苛政猛於虎(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사납다.)
- ③ 勞力者治於人(몸을 수고로이 하는 자는 남에게 다스림을 당한다.)－피동  
季子之見侮於其嫂(계자가 그 형수에게 업신여김을 당했다.)

而

- ① 登高山而望四海(높은 산에 올라 사해를 본다.)—순접
- ② 樹欲靜而風不止(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질 않는다.)—역접
- ③ 何必曰利, 亦有仁義而已(왜 반드시 이로움만을 말씀하십니까? 역시 인의가 있을 따름입니다.)—한정
- ④ 若能入而國武庫(만약 너의 나라 무기고에 들어갈 수 있다면.)—(너)

※ 참고 : 한정의 역할을 하는 조사

- 已 : 可謂好學也已(가히 학문을 좋아한다고 이룰 수 있을 뿐이다.)
- 耳 : 直不百步耳(단지 백보가 아닐 뿐이다.)
- 爾 : 軍有七日之糧爾(군에는 칠일의 식량이 있을 뿐이다.)

之

- ① 富與貴是人之所以欲也(부유함과 귀함 이것은 사람이 바라는 것이다.)—주격
- ② 古之學者, 必有師(옛날의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스승이 있었다.)—관형격
- ③ 天命之謂性(천명을 성이라 말한다.)—목적격
- ④ 直之雲從街(곧바로 운종가로 가다.)—동사
- ⑤ 汝能察之(너는 능히 그것을 살필 수 있다.)—대명사

也

- ① 李白詩仙也(이백은 시선이다.)—단정
- ② 追我者, 誰也(나를 쫓는 자는 누구인가?)—의문
- ③ 愚哉汝也(어리석구나, 너는)—감탄
- ④ 欲人之無惑也, 難矣(사람이 의혹이 없고자 함은 어렵다.)--주어 강조

矣

- ① 朝聞道夕死可矣(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.)—단정
- ② 噫甚矣, 其無愧而不知恥也(아아, 심하구나! 그가 부끄러워함이 없고, 수치를 알지 못함이어.)—감탄

哉·乎·耶·歟—의문종결사

- ① 初豈樂爲哉(처음부터 어찌 즐겨 하겠는가?)
- ② 人不知而不愠, 不亦君子乎(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 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면 역시 군자가 아니겠는가?)
- ③ 我則何故, 獨爲衆人耶(나는 무슨 까닭으로 유독 중인이 되었는가?)
- ④ 寧有改理也歟(어찌 고칠 리가 있겠는가?)

與

- ① 與民同樂(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겁다.)—(더불어)
- ② 吾與子之所共樂(나와 그대가 함께 즐기는 바이다.)—(~와)
- ③ 子非大夫與(그대는 대부가 아닌가?)—의문종결사

自·從·由(~로부터)

- ① 有朋自遠方來, 不亦樂乎(벗이 먼 곳으로부터 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?)
- ② 願從君借萬金(그대로부터 만금을 빌리기를 원합니다.)
- ③ 禮義由賢者出(예의는 어진 이로부터 나온다.)

者

- ① 奢者心常貧, 儉者心常富(사치로운 사람은 마음이 항상 가난하고, 검소한 사람은 마음이 항상 부유하다.)—사람

② 農者天下之大本也(농사는 천하의 큰 바탕이다.)—사물·존재

③ 今者吾見兩頭蛇(오늘 나는 머리 둘 달린 뱀을 보았다.)—시간

### 且·及

① 不義而富且貴，於我如浮雲(의롭지 아니하면서 또 부귀한 것은 나에게서 뜬 구름과 같다.)—(또)

② 予及汝，偕亡(너와 내가 함께 망하리라.)—(～와)

### 乃

① 此乃不祥之物也(이것은 곧 상서롭지 못한 물건이다.)—(곧)

② 天下分列，數世然後 乃定(천하가 분열하여 여러 세대가 지난 후 이에 평정되었다.)—(이에)

### 雖(비록 ～이나)

① 人雖至愚，責人則明(사람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더라도 남을 꾸짖음에는 총명하다.)

② 國雖大，好戰必亡(나라가 비록 크더라도 전쟁을 좋아하면 반드시 망한다.)

### 況

① 況陽春召我以煙景(하물며 따듯한 봄날이 아름다운 경치로써 나를 부르니.)—(하물며)

### 則

① 越官則死(관직을 침해하면 죽는다.)—(～하면)

② 弟子入則孝出則悌(배우는 사람은 들어와서는 효도하고 나가서는 공경한다.)

與其~寧, 與其~不如, 與其~孰若—선택형 비교

- ① 與其禽獸也, 寧死也(그 금수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.)—  
(~하기보다는 차라리 ~하는 편이 낫다)
- ② 與其生辱, 不如死快(그 살아서 욕됨은 죽어서 상쾌함만 같지 못하다.)—(~하기보다는 ~하는 편이 낫다)
- ③ 與其有樂於身, 孰若無憂於其心(몸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 어찌 그 마음에 근심 없는 것만 같으리오.)—(~하는 것이 어찌 ~하는 것만 같겠는가)

## 2) 文型

### 平敘形

孔子聖人也(공자는 성인이다.)

夫子之道忠恕而已矣(夫자의 도는 忠과 恕뿐이다.)

三人行必有我師焉(三人이 감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그곳에 있다.)

### 否定形

#### ① 單純否定

仁者無敵(어진 사람은 적이 없다.)

積功之塔不墮(공들여 쌓은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.)

未見羊也(양을 보지 못했다.)

才或不足非所患也(재주가 혹시 부족하여도 근심할 바가 아니다.)

#### ② 二重否定: 非不·莫不·無不·無非·莫非·莫~莫~不 등(강한 긍정)

無遠不至(멀다고 이르지 아니함이 없다.)

莫不知愛其親(그 어버이를 사랑할 줄 모르는 이가 없다.)

吾矛之利, 於物無不陷也(내 창의 날카로움은 사물에 뚫지 못하는 것이 없다.)

- ③ 部分否定：不定詞를 한정해 주는 必・常 등을 사용해 사실이나 상황을 부분적으로 부정  
 千里馬常有而伯樂不常有(천리마는 항상 있으나 백락은 항상 있지는 않다.)  
 勇者不必有仁(용감한 사람이 반드시 어질지는 않다.)

### 禁止形

- 非禮勿視非禮勿聽(예가 아니면 보지 말며 예가 아니면 듣지 말라.)  
 無道人之短(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라.)  
 勿謂今日不學而有來日(오늘 배우지 아니하고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.)

### 疑問形

- ① 의문종결사：乎・耶・哉・與・諸 등  
 子非大夫與(그대는 대부가 아닌가?)  
 是何意耶(그것이 무슨 뜻인가?)  
 客亦知夫水與月乎(손님도 또한 무릇 물과 달을 아는가?)
- ② 의문대명사：孰・誰・何・焉 등  
 孰爲好學(누가 학문을 좋아합니까?)  
 漢陽中誰最富(한양에서 누가 제일 부자인가?)  
 大洞江水何時盡(대동강물은 어느 때나 마를꼬?)
- ③ 기타  
 諸公何不諒此(여러분들은 어찌 이것을 헤아리지 못하는가?)  
 工未素學奈何(공장의 일은 본래 배우지 않았으니 어찌 하겠는가?)  
 以子之矛陷子之盾，何如(그대의 창으로 그대의 방패를 뚫으면 어떠한가?)

## 反語形

燕雀安知鴻鵠之志哉(제비와 참새가 어찌 기러기와 고니의 뜻을 알겠는가?)

王侯將相，寧有種乎(왕후장상이 어찌 씨가 있겠는가?)

初豈樂爲哉(어찌 처음부터 즐겨 하겠는가?)

蛇固無足，子安能爲之足(뱀은 본디 발이 없는데 그대는 어찌 능히 이것의 발을 만드는가?)

焉得爲大丈夫乎(어찌 대장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?)

雖大，何畏焉(비록 크지만 어찌 두려워하겠는가?)

## 比較形

① 비교의 전치사：於·于·乎(～보다 더, ～과)

苛政猛於虎(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사납다.)

國之語音，異乎中國(나라말의 소리가 중국과 다르다.)

② 부정사를 사용：莫如·不若·不如

至樂莫如讀書(지극한 즐거움은 독서만한 것이 없다.)

地利不如人和(땅의 이로움은 사람의 화합됨만 같지 못하다.)

不若投諸江而忘之(그것을 강에 던져 잊는 것만 같지 못하다.)

③ 기타

與其禽獸也，寧死也(그 금수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.)—

與其와 寧의 결합

與其生辱，不如死快(그 살아서 욕됨은 죽어서 쾌함과 같지 못하다.)—與其와 不如의 결합

## 被動形

① 보조사(조동사)：被·見·爲～所·爲·所·見～於

先則制人，後則爲人所制(앞서면 남을 제압하고 지면 남에게 제

압당한다.)

信而見疑, 忠而被謗(미덥게 해도 의심받고 충성해도 비방받는다.)  
匹夫見辱, 拔劍而起(필부가 욕을 당하면 칼을 뽑고서 일어난다.)

② 전치사 : 於·于·乎

不信於友, 弗獲於上矣(친구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면윗사람에게도 신임을 얻지 못한다.)

③ 기타 : 의미상 피동인 경우

有功亦誅, 無功亦誅(공이 있어도 죽임당하고 공이 없어도 죽임당하다.)

仁則榮, 不仁則辱(어질면 영화롭게 되고 어질지 못하면 욕을 당한다.)

使動形

① 사동보조사 : 使·敎·令·俾 등

使王女二人各率部內女子(왕녀 두 사람로 하여금 부내의 여자를 각각 인솔하게 하다.)

賢婦令夫貴(어진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한다.)

俾予從欲治(나로 하여금 다스리고자 하는 대로 따르게 하였다.)

② 사동의 의미를 가진 동사 : 遣·命·說·勸 등

遣春秋入高句麗(김춘추를 보내어 고구려에 들어가게 하였다.)

命善射者射之(활을 잘 쏘는 사람에게 명하여 그것을 맞히게 했다.)

③ 기타 : 의미상 사동인 경우

動天地, 感鬼神(천지를 진동케 하고 귀신을 감동케 한다.)

死孔明走生仲達(죽은 공명이 살아 있는 중달을 달아나게 했다.)



### 假定形

如不可求，從吾所好(만약 구할 수 없다면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르겠다.)

春若不耕，秋無所望(봄에 만약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볼 것이 없다.)

欲速則不達(빠르고자 하면 도달하지 못한다.)

雖畜物，其心與人同也(비록 가축이라도 그 마음은 사람과 같다.)

### 感歎形

嗚呼，痛哉(아아! 원통하구나.)

久矣，吾不復夢見周公(오래 되었구나! 내가 꿈에서 주공을 다시 보지 못한 것이.)

甚矣，吾衰也(심하구나! 나의 쇠퇴함이며.)

惜乎，吾讀書本期十年，今七年矣(안타깝구나! 내가 책읽기를 10년을 기약했는데 지금 7년이구나.)